

인생의 근본 지혜는 때를 아는 것

작가 에세이

기세규

광주유학대학 교수
인문경영학박사



공자는 때(時)를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고 했다. 중용 시중장을 보면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反)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군자지중용야 군자이시중 소인(반)중용야 소인무기탄야 라는 말이 나온다.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답게 때(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소인의 (반)중용이란 소인이기에 (시도 때도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함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군자는 소인의 반대 개념으로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예의바르고 덕이 충만한 지식인으로 유교의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하다. 시(時)의 변화를 깨닫고 적절하게 행동하려면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미리 징조를 파악해야 한다.

사실 시(時)와 중(中)은 동서고금을 통해 최고의 생존 지혜다. 이는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우주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時)와 중(中)을 터득한 사람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위 앓을 자리 설 자리, 나아가고 물러서고, 기다릴 줄도 아는 여유와 인내심도 가질 수 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며 가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또 언제까지 가야할지 모를 때다.

하지만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봄에는 봄답게, 여름에는 여름답게, 가을에는 가을답게, 또 겨울에는 겨울답게 생활할 때 바로 순리를 거스리지 않은 일 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라 하겠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하고, 입을 다물 때와 열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음을 알

“그 누구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물질 낭비나 돈 낭비만 죄가 아니라 때를 몰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다. 그 때에 맞게 살 때 격조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 때를 아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해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 모습은 또 얼마나 보기에 민망한지...”

아, 때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결코 때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중적 즉 만사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자 처신이다.

일찍이 동양 사상의 양대 산맥 중 하나를 형성시킨 노자는 처세의 방법으로 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삶의 생활태도를 가져야 모름지기 뜻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 물(水)과 관련된 문구 중 동선시가 바로 그것이다. 동선시(動善時)는 '움직임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다. 행동할 때는 항상 때가 있는 것

이고 움직이는데 좋은 때라 함이니 이는 제 때에 맞춰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타이밍(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모든 성공에는 때의 흐름을 간파하고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님은 상식인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도 삼국지연의 적벽대전 이야기는 방법에 따른 교묘한 계획도 계획이지만 때의 활용(소설의 스토리 중 동남풍이 불게 되는 부분)이 거대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비록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 속 이야기지만 때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동양의 여러 고전에서 언급된 시(時)와 시중사상(時中思想)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자질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성취하려는 무슨 일이든 바로 적절한 시기와 환경에서 움직여야 한다. 생각과 행동함에 있어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모든 행위는 만물의 변화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를 알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그 누구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물질 낭비나 돈 낭비만 죄가 아니라 때를 몰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죄다. 그 때에 맞게 살 때 격조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 때를 아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해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 모습은 또 얼마나 보기에 민망한지 일상의 일에서 흔히 겪는다. 인생의 근본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기고 신의준 전남도의원



정부, 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민들 피눈물부터 닦아줘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을 완공했고, 시운전도 실시하며 준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북받쳐 터져 나오고 있다. 바다 오염은 사형선고와 같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어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거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한다. 미량이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ALPS로 처리한 물에 남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180배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자동동체인 기형 사슴벌레가 오사카시 도지마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제는 일본 어민들까지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바다는 한 사람,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다. 바다 오염은 전 인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원전 오염수 위험은 불확실해 검증되기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또 방사성 물질 피폭에 안전한 생물은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잠재적 위험을 외면하고 방류해 바다가 오염된다면 미래 인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응답했다.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그리고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에 가깝기에 반대가 70-80%를 넘나들 정도로 국내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산물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산물 기피 현상과 소금 사재기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 현상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수산시장 상인들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도 각각 20% 수준의 소비 감소가 있었다. 이제 서야 겨우 회복세를 되찾았는데 악몽 같은 오염수 방류 소식은 이전 일시적인 방출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수산업계에 타격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듯 대다수 국민들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과 생사의 기로에서 있는 수산업계에 공포에 비해서 정부가 보여준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의 타격을 입고 있는 어민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 계획 수립·시행,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구매, 판매 촉진, 홍보 등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막무가내인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그냥 놔둘 수도,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책을 마냥 두고 볼 수도 없기에 흑시나 모를 방류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일본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폐기하고 육상 저장쪽으로 선회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하루바삐 어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서보 예술상' 폐지 관련 보도를 바라보며



취재수첩

도선인

문화체육부 기자
sunin.do@jnilbo.com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리게 된 이번 비엔날레는 외부전시관과 국가별 부록전시인 파빌리온 등이 역대 최대규모로 구성되는 등 많은 기대 속에 순항했다. 지난 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장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부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주한 대사 부부 등 유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것은 꽤 고무적인 일이다.

순항 속에서도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소수자, 원주민 등 제3세계를 집중 조명할 만큼 이슈몰이나 대중성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술여행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비엔날레 연계 관광 활성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최대 논란은 '박서보 예술상'이었다. 지역 미술계 안팎으로 폐지 목소리가 이어졌던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 제1회 시상식을 끝으로 폐지된 것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단색화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박서보 화백의 100만달러 후원으로 '박서보 예술상'을 제정했으며 제14회 광주비엔날레부터 2042년까지 비엔날레 시즌마다 참여작가 1명을 선정해 10만 달러씩 수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1회 수상자가 이미 발표된 이후 폐지 여론이 이어졌고 급기야 (재)광주비엔날레는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1회 시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0만달러는 박서보 화백이 설립한 기지재단에 전액 반환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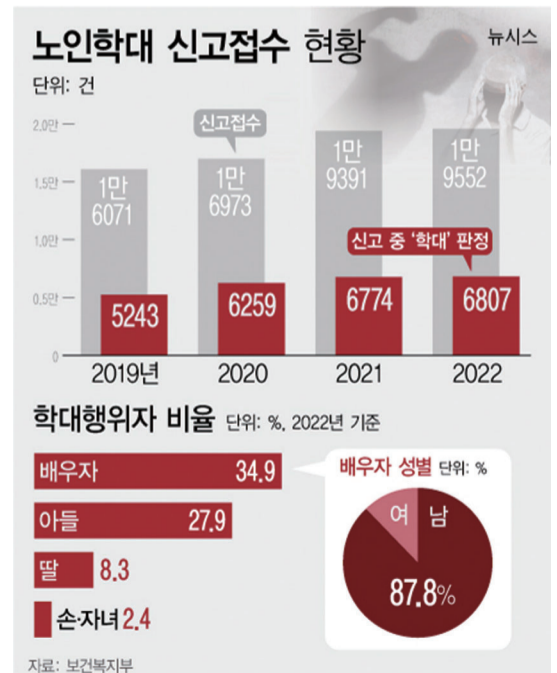
'박서보' 개인의 이름을 딴 상은 사적 명예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광주비엔날레 정신에 위배된다는, 폐지를 주장하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제1회 시상으로 상이 없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며 언론 보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박서보 예술상' 폐지 목소리는 지난 4월6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주장하는 현수막과 팻말이 등장했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한 시위 퍼

포먼스였는지 불명확해 개막식 당일의 상황은 기사화하지 않았지만, 이후 폐지 여론은 광주 미술계로 퍼지는 모양새였다. 몇몇 광주 미술계 인사와 작가들이 모여 예술상 폐지를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니 더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 기사는 심층 보도가 아닌 성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이에 대한 비엔날레 측 입장을 단순하게 처리한 양비론 보도에 그쳤다.

물론 항상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보도 현장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 분석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그렇지만 언론은 박서보 화가에 제기된 비판들을 단순히 받아적는 것을 넘어 적합한 비판인지 따져보고 (재)광주비엔날레는 제정 단계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제정 논의 단계부터 기증자의 이름을 내건 미술상이 적합한가 고민한 심층 보도가 선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국내보다 세계인들에게 더 인정받는다는 광주비엔날레에서 권위 있는 예술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